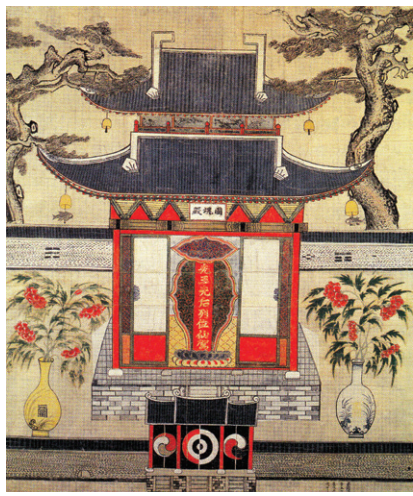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승가 화합과 전등의 사명 기억해야”

感慕如圖(감모여제도) 소견(所見)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표현한 '감모여제도'

감모여제도는 이름 그대로만 읽고 이해하려면 조금 무리가 가는 명칭이다. 감모여제(感慕如圖)란 말은 사실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모습이 실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감모여제도는 원래 민화의 한 갈래로 들어가는 조선시대 특히 유교사상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대개의 경우 사당을 그리되 단아한 지붕에 잡상(雜像)이나 용두의 치미(雉尾)를 단정하게 그리고 서너 칸의 자그마한 집을 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위패를 배치하고 바로 앞에 제사상을 펼쳐 놓은 형태가 주로 많은데 상에는 여러 가지 제수인 과일이나 제사도구인 향향함 촛대 술잔 꽃병 등을 그려넣는다.

그림의 형태는 대개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 형태로 놔두거나

사당은 보통 주심포(柱心包) 양식에 약하게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겹쳐져 팔작지붕을 얹은 것이 보통이다. 지붕 용마루 양쪽에는 용두치미를 두어 사악한 기운을 막고 처마의 곡선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날렵한 모양새를 자랑한다.

또 전체적으로 단정을 철해 아름다우면서도 정숙하고 화려한 모습을 지닌 집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찰의 법당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 감모여제도에 나오는 사당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여 그 은택을 기리면, 마치 금방이라도 위패를 모신 집 안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림이 감모여제도인 것이다.

요즘은 이 그림을 보면 간절히 그리워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 다름 아닌 보조국사 지눌 큰스님이다. 스님은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에서 후손인 우리 승려들이 반드시 승가의 화합과 전등의(傳燈)의 사명을 잊도록 간절히 부탁하셨다.

특히 생각나는 구절은 부득양여가추(不得揚於家醜)하고, 단찬원문불사(但讚院門佛事)이다 라는 부분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안의 좋지 못한 일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가람의 불사를 찬탄할지이다” 요즈음, 선배스님들의 활약을 보면서 더욱 더 생각나는 글귀이다. 매일 자고, 일 어날 때마다 깎은 머리를 쓰다듬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살아야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사당과 제사상을 그려 놓아
-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표현
- 사찰과 유사한 건물 보며
- 보조국사 지눌 부탁 떠올려

족자를 한다. 집안의 정갈한 곳에 모셔 놓았다가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 걸어놓고 조상의 명복을 비는 방식이다. 이는 사당이 없는 가난한 선비들이나 멀리 여행을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감모여제도의 다른 명칭은 사당도(祠堂圖)이다. 말 그대로 집을 그리므로 집이 주제가 되는 특이한 그림이다. 그 집 안에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다시 그 영혼을 마치 살아있는 부모님을 모시듯이 제사를 올려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유훈(遺訓)을 받드는 그림이다.

감모여제도에 나오는 노송(老松)은 유서(由緒)깊은 집안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또 오동나무를 그리는 경우는 군자의 덕을 함께 보이며, 그 위에 달을 그려 차고, 기울어지는 달의 모습을 통해 조화와 융합, 재생 등을 보인다. 또 띠에 국화(菊花)를 그리는 경우는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신비로운 영약(靈藥)으로 인식되는 국화를 통해 그의(義)를 밝히고, 모란화분은 부귀옥당을 상징하여 음악의 기운을 묘사한다.

수륙재로 업보 푸는 비극적 사랑 노래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15일 초연

지난해 공연된 뮤지컬 '원효'에 이어 불교를 모티브로 한 또 하나의 창작뮤지컬이 관객들을 찾는다. 불교의식 중 하나인 수륙재(水陸齋)가 대형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로 탄생해 6월 14~15일 오후 7시 30분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초연된다.

6월 12일 여수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회 한국대회(WFB)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뮤지컬은, 단 이틀만 공연되기 아쉬울 정도로 한국뮤지컬계의 최고 스타들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르마의 노래'는 수륙재를 통해 불교의 정신,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전통의 식이다.

공연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볼 수 있는 여인 '사하'와 불의 정령 '갈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불교의 연기·윤회 사상 등을 이야기한다. 이 둘은 전쟁 속에서 만나 이뤄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한다. '카르마(업)'라는 제목에서처럼, 다른 이의 업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하'와 '갈마'는 자신들의 운명과

업보를 수륙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한다.

이번 공연은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륙재를 대중적인 뮤지컬로 승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알려 의미가 크다. 무대는 강렬하고 호소 짙은 음악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은 전쟁과 수륙재를 바탕으로

최고 스타프와 배우들 대거 참여

3D그래픽 등 화려한 무대 선보여

전개돼, 3D그래픽 등 다양한 영상기술들이 화려하게 선보인다.

공연에는 2009년과 2007년 각각 '뮤지컬 어워드 남녀신인상'을 수상해 뮤지컬계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강태웅과 이정미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이상연, 이필승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또 뮤지컬 '명성황후' '몽유도원도' 등을 제작한 윤상훈 연출가가 공동 연출로 참여했으며, 뮤지컬 '라디오 스타'로 뮤지컬 어워드 작곡상을 수상했던 허수현이 공



WFB 한국대회를 기념해 만든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일 초연을 앞두고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음악을 담당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일 WFB 문화공연 총감독은 "공연은 그래픽 영상이 결합해 독특한 무대연출을 선보여 굉장한 인상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며 "관객들이 공연 후 '선업을 쌓을 것인가' '악업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FB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은 "뮤지컬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전쟁과 평화 사랑 등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며 "이번 WFB 기간에 예술문화공연을 통해 한국불

교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6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WFB기간에는 >6월 12일 오후 4시 여수 흥국체육관 '불교합창제' >6월 12일 오후 7시 30분 여수 거북선 공연 '점심식 및 등 전시' >6월 13일 오후 7시 여수 디오션 호텔 그랜드볼룸 '소리 수행 법배 콘서트' >6월 13일 오후 5시 30분 여수 흥국체육관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김석곤, 불화의 정통을 말하다

'佛 빛' 전 6월 13~19일까지

20년 넘게 불교미술작품 활동을 펼쳐온 김석곤 작가가 6월 13~19일 서울 종로로 포하우스에서 두 번째 개인전 '佛 빛'을 연다.

불화와 단청 뿐 아니라 벽화와 단청도사, 개공 등 다양한 장르를 작품에 반영한 김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정통 불화기법으로 작업한 '아미타극락회상도' '지장보살도' '금니아미타불도' 등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연화병머리조, 포벽화, 용면 등에 고색단청기법을 적용해, 신색단청기법을 사용하는 불화가들과 차별화된 단청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미타극락회상도'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를 모본으로 하단에 연화 화생하는 인물들을 표현하고, '지장보살도' 또한 고려불화의 지장보살도를 모본으로 나무에 한지를 배접해 그려, 작품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재해석을 보여



'아미타극락회상도', 김석곤 작

준다.

이밖에도 김 작가는 금분으로 조성한 '금니아미타불도' 등을 전시해 다양성과 정통성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02)734-7555

이은정 기자

천진불들 성보 문화재 화폭에 담아

광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 그림전 9월 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9월 2일까지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2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시루 분청사기편백 백자전꽃무늬항아리, 선의왕 후존전도감의 경우 50여 점이 관객들을 찾았다.

이 전시는 어린이들이 문화재와 소통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광주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이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수상작들"이라고 전했다.

'제2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313명



대상을 받은 남정우 어린이의 '시루'

이 참가해 51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입선 30명, 특선 8명, 우수상 6명, 최우수상 6명, 대상 1명으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시루'를 그린 조봉초등학교 3학년 남정우 어린이가 수상했다.

광주박물관은 "심사위원단은 어린이의 맑고 순수한 심정으로 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줬다.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표현기법이 다양해지고 세련된 기량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 행사에서는 또한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린 협동작품도 전시된다. (062) 570-702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오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물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인가.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기피가 불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 대원 문제현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니?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걸니?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할니?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갈니?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행복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무한한 불성의 힘, 믿고 깨달아 쓰자!

자기를 비워 세상 전부를 얻는 비움과 나눔의 지혜!
시비·분별 없는 평상심으로 살면 일상의 삶이 도도하다

참선과 공경 독송의 힘으로 풀어진 더불어 행복한 성공 전략!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선을 통한 인생경영**

최우현 지음 | 비움과소통 파낸 국문 편집 | 148쪽 | 2800원 | 14,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중

생활선生活線으로 풀어진 참된 자기개발과 성공학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정을 선(線)으로 풀어진 자기개발사. 저자(최우현) 공로연(대표)이 조직으로 (공경경)을 독송하고 최선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힘을 바탕으로 바른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성공 노하우를 종교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저자는 개인적인 수행체함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고 실천 및 진어덕, 경제·경영·성공학 서적과 자기개발서 등을 인용하며 현대인의 참다운 행복을 논하고 그 성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주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외를 범람하여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외불 (열반상)
성지순례를 외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 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기법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